

## 폴란드 사무소/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2월 2주~2월 3주)

### 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#### ① 폴란드 경제 동향

##### ○ 폴란드 2026년 물가안정 전망,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(2.10)

- 폴 중앙은행(NBP)은 2026년 물가상승률이 목표범위(2.5%±1%p) 내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, 연내 2.5%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
- 2025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.4%로 둔화, 목표치(2.5%)에 근접한 수준 유지
- 통화정책위원회(MPC)는 2023년 기준금리를 최고 6.75%까지 인상 후 완화 기조로 전환하며 2025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175bp 금리 인하
- NBP는 3월 발표 예정인 물가 전망에 부정적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
-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흐름은 추가적인 통화완화 여건을 조성, 경기 회복 및 금융 여건 완화에 긍정적 요인
- 이번 발표는 폴란드 통화정책이 중기적 완화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신호로 평가됨

##### ○ 폴란드 2026년 1월 실업률 6.0%로 상승(2.10)

- 폴 가족·노동·사회정책부(MRPiPS)는 2026년 1월 등록 실업률을 6.0%로 집계, 전월 대비 0.3%p 상승한 것으로 발표
- 1월 말 기준 등록 실업자 수 934,800명으로, 전월 대비 47,000명(+5.3%), 전년 대비 97,200명(+11.6%) 증가함
- 1월 신규 구인 공고 및 직업 활성화 일자리는 25,400건으로 전월 대비 22.4% 증가하였으나, 전년 대비로는 71.3% 급감
- 주요 구인 분야는 사무직·판매직·건설·생산·청소·물류·국경수비대 등으로 나타남

- 지역별 실업자 증가폭은 실레지아주(+5,300명), 마조비에츠키에주(+4,500명), 비엘코폴스키에주(+3,800명) 순으로 나타남
- 지역별 실업률은 최저 비엘코폴스키에주(3.8%), 최고 바르미아마주리주(9.9%)이며, 포즈난·바르샤바 등 대도시는 1%대 낮은 실업률 유지
- 370개 군(郡)에서 실업률이 상승하였으며, 실업률이 감소한 지역은 없음
- 주요 실업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, 합의해지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 나타남
- 실업자의 구직 등록 목적은 건강보험 확보(40.9%), 취업 알선(38.7%)이며, 주요 실업 직종은 판매원·요리사·미용사·창고직·정비사·건설보조원 등 서비스·기능직 중심으로 나타남
- 실업자 수는 8개월 연속 증가세로, 계절적 비수기·고용활성화 프로그램 축소·기업 채용 둔화·집단해고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
- 2025년 집단해고 인원은 29,5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9% 증가하였으나, 2025년 6월 시행된 노동시장법 개정으로 실업자 지위 유지 요건이 완화되어, 통계상의 실업자 수가 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
- 정부는 2026년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, 봄철 건설·서비스업 회복과 채용 확대에 따른 고용 개선 기대
- 다만 노동기금 축소로 고용지원 프로그램이 제한되면서 실업률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됨

## 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

- 우 중앙은행(NBU), 기준금리 15%로 인하하며 완화 기조 전환(1.30)
  - 우크라이나 중앙은행(NBU)이 인플레이션 완화 흐름을 반영해 기준금리를 15%로 인하
  - NBU는 연말까지 물가상승률이 7.5%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며, 인플레이션 압력 감소와 대외 자원 조달 리스크 완화를 고려해 통화완화 사이클을 개시했다고 설명
  - 2025년 12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8%로 둔화, 농업 수확량 개선·노동시장 압력 완화·환율 안정 등이 주요 요인

- 전면전 발발 이후 기준금리는 2022년 6월 25%까지 인상된 후 2023년 7월부터 단계적 인하 국면 진입
  - 2025년 1월 14.5%, 3월 15.5%로 재차 인상된 뒤 이번에 15%로 조정
  - 기준금리는 은행권 예금·대출 금리 산정의 핵심 지표로, 이번 인하는 금융시장 유동성 확대와 경기 회복 지원 효과 기대
  - 전쟁 장기화 속에서도 거시경제 안정과 통화정책 정상화로의 점진적 복귀 신호로 평가됨
- 우 지하경제 규모 1조 흐리우나 초과, 조세손실·불공정 경쟁 심화(2.10)
- 우크라 의회 재정·조세·관세위원장 헤트만체프는 자국 지하경제 규모가 1조 흐리우나(약 230억 달러)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
  - 지하경제로 인한 탈세 규모 역시 1조 흐리우나를 초과해, 농업·소매·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서 불공정 경쟁을 초래
  - 주요 문제로 밀수, 임금의 현금 지급(봉투 급여), 부가가치세 조작 및 개인사업자 쪼개기 관행 등 지적
  - 2026년 국회 핵심 과제로 주류·담배·연료 등 과세상품 시장의 지하경제 근절 추진
  - 연료 부문은 개선 진전이 있었으나, 2025년 말 담배 불법시장 비중이 18%로 재확대되며 관리 후퇴
  - 2024년 정부는 지하경제 단속 강화로 약 25억 달러 추가 세수 확보
  - 2026년에는 유럽 관세규정(EU Customs Code) 도입 확대 및 이전가격(Transfer Pricing) 감독 강화 계획
  - 당국은 조세 투명성 제고와 세원 확충을 통해 재정 안정성과 공정경쟁 환경 구축을 중점 추진할 방침

### ③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

- **Orlen - 핀란드 기업, 재생 수소 협력하며 폴 수소 생태계 본격화(1.27)**
- 폴 국영 에너지기업 Orlen이 핀란드의 ABO Energy Suomi, Nordic Ren-Gas, VolagHy Kuopio SPV와 재생수소 및 수소 유도체 생산·

공급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

- 협약은 향후 수요 증가 국면에서 재생수소의 안정적 조달을 목표로 하며, Orlen의 산업 탈탄소화 전략과 유럽 수소 생태계 구축의 핵심 축으로 평가
  - 발춘 국유재산부 장관은 “에너지원 다변화는 경제·정치적 안보를 강화한다”며, 이번 협력이 폴란드 내 수소 기술·생산 역량 확대와 100개 이상 수소 충전소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
  - Orlen은 재생수소를 산업 공정·연료·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, 폴란드 내 염동굴(salt cavern)을 활용한 대규모 수소 저장 전략도 병행 추진
  - 협약에는 핀란드→폴란드 수소 및 수소 유도체 운송·공급 모델 공동 개발이 포함되며, Orlen의 정유·석유화학 플랜트에 공급하는 물류 조건을 구체화할 예정
  - Orlen 경영진은 핀란드 기업들의 기술·경험을 활용해 경쟁력 있는 가격의 수소를 확보하고, 이를 폴란드에 저장·중부유럽으로 공급하는 허브 역할을 목표로 제시
  - Orlen은 이미 P2X Solutions Oy와 협력 경험을 보유, 발트해·북유럽 파트너십을 통해 수소·합성연료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‘2035 전략’에 따른 무탄소 연료 전환 가속화 추진
  - 종합적으로 이번 협약은 폴란드가 중부 유럽 재생수소 허브로 도약하는 전환점이자, EU 산업·운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뒷받침할 전략적 협력 사례로 평가됨
- GDDKiA, A4 카토비체 - 크라쿠프 고속도로 확장 설계 입찰 준비(1.28)
- 폴 국가도로청(GDDKiA)이 A4 카토비체 - 크라쿠프(약 61km) 구간 확장을 위한 설계 문서 작성 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며, 구체적 확장 범위·공법은 설계 완료 후 확정 예정
  - 확장은 넓은 녹지 형태의 중앙 분리대를 활용해 기존 교통을 유지한 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유력
  - GDDKiA는 A2 우치 - 바르샤바 구간 확장 사업(현재 시공 입찰 진행 중)과

A1 실롱스크·우치 주 확장 공사 경험을 참고해 설계, 교통관리, 공사 단계 전반에 반영할 계획

- 특히 A2 우치 - 바르샤바 확장 계약 체결 결과를 통해 A4 확장 사업의 비용 추정 정확도 제고를 핵심 준비 요소로 언급
- A4 카토비체 - 크라쿠프 구간은 1997년부터 Stalexport Autostrada Małopolska가 관리해 온 민자도로로, 현행 운영권은 2027년 3월 종료 예정
- 정부는 운영권 연장이나 신규 민자 재선정 계획이 없으며, 2027년 이후부터는 GDDKiA가 직접 유지·관리 책임을 인수할 방침
- 본 확장 사업은 실롱스크 - 마워폴스카를 연결하는 핵심 동서 교통축의 상습 정체 해소 및 물류 효율 개선을 목표로 함
- 민자 종료 이후 국가 직영 체제로 전환되는 첫 대형 고속도로 확장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됨
- 참고로 GDDKiA가 관리하는 폴란드 국가 고속·간선도로망은 총 5,465.7km로, 이 중 고속도로 1,896.5km, 고속화도로 3,571.2km 규모

○ **Orlen, GA Polyolefins에 2,870만 달러 대출 즉시 상환 요구(1.29)**

- Orlen은 GA Polyolefins에 대해 2025년 제공한 대출금의 즉시 상환을 공식 요구, 원리금 합계 2,870만 달러 규모
- 해당 대출은 프로판 구매 자금 조달 목적으로, 2025년 3월 17일 체결된 대출 계약 및 5월 26일 부속 합의에 근거
- Grupa Azoty 공시에 따르면, 은행권이 GA Polyolefins의 대출을 기한이익 상실 처리함에 따라 Orlen도 동일한 절차에 착수
- 2026년 1월 28일 기준 Orlen에 대한 채무는 이자 포함 2,870만 달러로, 회사에 대한 구상권(recourseless)은 없는 구조
- Grupa Azoty는 Orlen의 상환 요구가 2025년 9월 30일부 안정화 협약 만료 및 채무 불이행에 따른 형식적 조치로, GA Polyolefins 지분 인수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
- Andrzej Skolmowski CEO는 이번 조치가 일반적인 금융 관행에 부합하며,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 및 채권자와의 채무 조정 절차에는 영향을

미치지 않는다고 강조

- GA Polyolefins는 현재 채무 조정 합의를 위한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, Orlen과는 100% 지분 매각 협상에 대한 대화도 병행 중
- GA Polyolefins는 총 사업비 70억 즈워티 이상 규모의 Polimery Police (프로필렌 생산 설비) 프로젝트를 담당하나, 프로젝트는 수년간 지연
- 2025년 8월,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111백만 유로 규모의 계약상 벌금을 부과했으며, 11월에는 법원 구조조정 절차 개시 결정
- Orlen은 2025년 10월 GA Polyolefins 100% 지분을 12.2억 즈워티에 인수하는 비구속적 제안을 제출했으며, 제안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
- Grupa Azoty는 2025년 11월, Polimery Police 투자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 발생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형사 고발 조치
- 본 사안은 Polimery Police 프로젝트를 둘러싼 재무·법률·산업 리스크가 동시 표면화된 사례로, Orlen 인수 협상, 채무 재조정, 프로젝트 정상화 가능성이 향후 핵심 변수로 평가됨

○ **Budimex, ISO 19443 인증 획득, 폴 원자력 공급망 진입 첫 단계(1.29)**

- 폴란드 최대 건설사 Budimex는 Bureau Veritas로부터 ISO 19443(원자력 품질경영시스템) 인증을 획득, 원자력 에너지 공급망 참여를 위한 공식 요건을 충족
- ISO 19443은 원자력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·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제 표준으로, ▲원자력 안전 중요 요소(ITNS, Important to Nuclear Safety) 관리 ▲조직 전반의 안전 문화 구축 ▲엄격한 문서·품질 통제 체계 확립에 중점
- Budimex는 이번 인증을 폴란드 원자력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“첫 번째 주요 공식 단계”로 규정하며, 향후 원전 건설·에너지 인프라 분야 역량 확대 의지 표명
- 인증 획득을 위해 2025년 10월부터 전사적 심층 감사가 진행되었으며, 약 40명의 핵심 인력이 프로세스 정비, 품질·문서 관리 강화, 안전 문화 내재화 작업에 참여

- Maciej Olek 이사는 “Budimex는 이미 성숙한 품질·안전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으며, 이는 원자력과 같은 고위험·고책임 프로젝트 수행의 필수 조건”이라고 강조
- Budimex는 향후 건설 시장에서 도로 인프라 비중은 축소되는 반면, 철도·에너지(원자력 포함) 부문이 핵심 성장축이 될 것으로 전망
- 특히 원자력·에너지 프로젝트는 장기적 관점, 안정적 엔지니어링 역량, 높은 품질 기준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분야로, Budimex의 전략적 포트폴리오 전환과 부합
- 본 인 증은 폴란드 원전 도입을 앞두고 국내 건설사들이 원자력 공급망 진입을 위한 제도적·기술적 준비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

#### ○ PGE Energia Odnawialna, 35MW Dzwola 풍력발전단지 인수(1.29)

- PGE Energia Odnawialna는 Wind Farm Łada 지분 100%를 인수하며 35MW 규모의 드즈볼라 풍력발전단지를 확보했다고 발표
- 이번 인수로 PGE의 육상풍력 설비용량은 기존 797MW에서 832MW로 확대되며, 폴란드 내 풍력발전 선도 지위 강화
- Dzwola 풍력단지는 3.5MW급 터빈 10기로 구성되며, 부대 인프라 및 변전 설비를 포함
- 2024년 7월 사용 승인, 2025년 6월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였으며, 연간 예상 발전량은 100GWh 이상으로, 약 3만 가구의 전력 수요를 충당 가능
- PGE Energia Odnawialna 사장은 향후 풍력단지에 ESS를 도입해 생산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
- 해당 풍력단지는 Onde와 Nordex Polska의 협력으로 건설됨
- PGE Energia Odnawialna는 현재 풍력 22개 단지, 수력 29기, 양수발전 4기, 태양광 63개 단지를 보유한 폴란드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기업
- 이번 투자는 PGE의 육상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과 전력 안정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됨

#### ○ Budimex 컨소시엄, Rail Baltica 폴란드 구간 설계·시공 사업 수주(1.29)

- PKP PLK가 Rail Baltica 프로젝트 3개 구간 설계·시공 통합 사업의 우선

협상대상자로 Budimex 컨소시엄을 선정

- 대상 구간은 Białystok - Knyszyn - Osowiec - Elk 구간이며, 총 입찰금액은 순액 기준 40.47억 즈워티, 이 중 기본 공사범위는 23.6억 즈워티 규모
- 컨소시엄 구성은 Budimex(지분 70%, 주관사), Budimex Kolejnictwo(5%), PORR(25%)로 구성
- 계약 체결 후 공사 및 상세설계 완료까지 총 46개월이 소요될 예정
- 본 사업은 발트 3국과 폴란드를 연결하는 범유럽 철도망 핵심 사업인 Rail Baltica의 주요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, 군사·물류·여객 수송 경쟁력 강화 목적
- 이번 수주는 Budimex의 철도 인프라 분야 수주잔고 확대 및 중·동유럽 교통 인프라 시장 내 입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

### ○ PSE, 향후 재생에너지 생산 287TWh 초과 가능성 전망(1.30)

- 폴 전력망 운영사 PSE는 2027~2036년 전력망 개발계획 초안에서, 향후 국가 전력 시스템 용량이 86GW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
- 육상풍력 43GW, 해상풍력 17GW 이상으로 재생에너지 연간 생산이 287TWh를 초과할 수 있다고 전망
- 현재 연결계약 체결 및 연결조건 발급 기준으로, 태양광 86GW(생산 잠재량 93TWh), 육상풍력 43GW(125TWh), 해상풍력 17GW(70TWh)의 설치 및 생산 가능성 존재
- PSE는 이를 근거로 “본 계획에 명시된 투자가 실행되면 전력망이 재생 에너지 개발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”라고 강조
- 2025년 말 기준 75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연결 승인 또는 조건 발급을 받았으나, 실제 설계·시공·조립 단계에 착수한 프로젝트는 극히 일부임
- 연결 예정 총 설비용량은 205GW이며, 이 중 90GW 이상은 에너지 저장 설비
- 정부가 처리 중인 에너지법 개정안은 신규 에너지원 연결절차 개혁, 기존 발급된 연결 조건 검증, 투명성 제고, 연결 용량 확보 등을 목표로 함
- 산업계, 특히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업체들은 단계별 이행 기한이 짧고, 재정 보증 기준이 대형 개발사에 유리해 투자 위험을 높인다고 우려
- 에너지부 장관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기업의 전환 기간 보장 및 보증 수준

조정 등 법안 수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표, 관련 논의는 2월 10일 하원에서 진행할 예정

- 폴 철도화물, 2025년 최저 운송량에도 운송업체 설비투자 지속(1.31)
  - 2025년 폴란드 철도화물 운송량은 217.8백만 톤으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, 전년 대비 2.6% 감소. 운송 성과는 562억 톤·킬로미터로 3.5% 하락
  - 민간업체 Alza Cargo는 운송 감소, 경영 악화 및 폐업 사례 증가를 언급하며, 노선 정비·현대화에 따른 운행 제한과 일정 조정 미흡 문제를 지적
  - 육상 운송과의 경쟁 심화가 주요 과제로, 철도는 非벌크 화물 운송 시 추가 비용(특히 라스트마일 서비스) 부담으로 경쟁력 약화
  - 2월 1일 기준 인프라 접근료 40% 인상 등 정부 대응에도 불구하고, 2025년 12월 이후 일부 지표가 회복되며 건설자재, 재활용품, 생활 폐기물 운송 비중 확대
  - 2026~2027년 반등 기대. CPK 건설, 항만 병목 해소,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화물 운송 활성화 전망
  - 여객 열차 증편에도 불구하고 화물 열차 접근성 유지. 예약 미사용 노선 요금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노선 점유 제한 추진
  - 겨울철 한파로 장비 고장, 적재·하역 지연, 인프라 장애 증가 등 운영 차질 발생
  - 신형 기관차 수요 지속, Alza Cargo는 2027년 2대 임대, Orlen Kolej는 2028년까지 40대 신규 도입 예정. 신형 기관차는 기존 대비 톤당 약 30% 에너지 절감 효과
  -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신형 설비 교체 및 임대 수요는 지속될 전망, Pesa는 이미 2년치 주문 물량 확보
- 스페인 Iberdrola, 폴란드 160MW 규모 BESS에 공공자금 확보(1.30)
  - 스페인 전력기업 이베르드롤라(Iberdrola)는 폴란드 내 3개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(BESS) 사업(총 160MW)에 대해 약 186백만 즈워티의 공공자금을

확보했다고 발표

- 해당 자금은 폴란드 국립환경보호·수자원관리기금(NFOŚiGW)을 통해 Iberdrola Renewables Polska에 지원
- 지원 대상 사업은 마조비아 지역의 Pniewnik 1(38MW), Pniewnik 2 (42MW)와 하부 실레시아 지역의 Zushi(80MW) 프로젝트로 구성
- 이들 프로젝트는 폴란드 내 전력망 안정화 및 전기화 확대를 위한 에너지저장 인프라 확충 전략의 일환
- 이베르드롤라의 폴란드 내 전체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은 약 940MW 규모로, 다수의 배터리 저장사업을 포함
- 이번 투자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대응과 전력계통 유연성 강화를 통해 폴란드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기반으로 평가

#### ○ PSE, 재생에너지·ESS 연결평가 규칙 업데이트 시행(2.2)

- 폴란드 송전망 운영사 PSE가 풍력, 태양광, 에너지저장시설(ESS) 연결검사 규칙을 개정
- 주요 변경사항은 허용 과부하를 2배 확대(1→2 MVA) 및 설치용량 100% 기준 분석 도입
- 과부하 허용치 확대 개정을 통해 소규모 과부하로 인한 연결 거부 사례와 투자자-배전망 운영자(DSOs) 분쟁 감소 기대
- 태양광·풍력 시설 분석 범위를 기존 90~95%에서 100%로 상향하며, 풍력 발전 출력을 현실적으로 평가 가능, 다만 일부 설치 시 연결 용량 제한 가능성 존재
- ESS 주변 재생에너지 계수 상향: 육상풍력 19→38%·42→83%, 해상 풍력 45→89%·47→94%로 조정, 실제 운영 상황 반영, 다만 추가 그리드 적응 투자 필요
- 2035년을 연결 판단 기준 연도로 설정, 설치 시점이 아닌 2035년 전력 계통 상황 기준으로 연결 가능 여부를 평가, 초기 운영기간 동안에는 출력 제한 발생 가능
- 가스, 바이오매스, ITPOK(폐기물 발전) 등 신규 용량 활용계수 도입,

하이브리드 프로젝트 및 전력계통 분석 정밀화 가능

- DSOs 연결신청자 명단 업데이트 기한 연장되었으나(2→6주), 기존 신청서가 대기열에 남아 연결 지연이 예상
- 이번 규칙 개정으로 투자자에게 연결 안정성 향상 및 설비 출력 현실 반영, 동시에 장기 계획과 초기 운영계약 고려 필요

○ **Grupa Azoty** 노조, 투스크 총리에 경영위기 대응 촉구 서한 발송(2.2)

- 폴란드 화학·비료 대기업 Grupa Azoty 내 연대노조(Solidarność)가 투스크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회사 경영위기를 국가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긴급 대응할 것을 요청
- 노조는 고에너지·가스 비용, 동유럽산 저가 비료 수입에 따른 불공정 경쟁, EU 탄소배출권거래제(ETS) 부담, Polimery Police 프로젝트 관련 재무 리스크 등을 주요 위기 요인으로 지적
-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과 사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, 전략 산업 내 일자리와 국가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
- 노조는 그룹의 사업 연속성과 투자 여력 유지를 위해 신속한 자본 확충(재자본화) 조치를 요구
- 에너지 다소비 전략 산업에 대한 전력·가스 비용 완화 메커니즘 도입과 EU·국가 차원의 시장 보호 조치도 함께 요청
- 동유럽산 비료 유입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보호무역 수단 도입을 촉구하며 '동등한 경쟁환경' 조성을 강조
- Polimery Police 프로젝트 관련 재무 위험 해소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정부·주주·금융기관·경영진 간 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
- 노조는 Grupa Azoty가 폴란드 경제와 식량안보의 핵심 축임을 강조하며, 정부의 구체적이고 신속한 대응 계획 제시를 요구
- 이번 서한은 에너지 비용 상승과 친환경 규제 강화 속에서 폴란드 중화학·비료 산업의 구조적 위기 심화를 반영한 사례로 평가됨

○ **TAURON, Jaworzno OCGT** 가스터빈 공급 및 장기 유지보수 입찰 공고(2.2)

- TAURON Wytwarzanie가 Jaworzno III 발전소에 설치될 개방형 사이클

가스터빈(OCGT) 터빈 아일랜드 공급 및 다년 서비스 계약 입찰 공고

- 입찰 범위는 터빈 아일랜드 공급, 조립·시운전 컨설팅, 다년간 유지 보수·기술지원·고가용성 보장 서비스 포함
- 계획 중인 OCGT 단위는 국가전력망 변동성 대응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유연성 확보용 개입·조정원으로 설계
- 2025년 12월 용량 시장 입찰에서 2030년 납품용 용량 계약 확보, 전력계통 운영 안전성 및 재생에너지 통합 지원 역할 확인
- TAURON CEO는 OCGT 단위가 신속한 계통 대응과 재생에너지 공급 보완에 핵심적이라고 강조
- 이번 투자로 Jaworzno 지역 에너지 허브 기능 강화, 지역 기술 인프라 활용 및 국가 전력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#### ○ 폴란드 Port Polska 건설 재원조달 협상 본격화(2.3)

- 폴 중앙교통항만공사(CPK)는 2032년 개항 예정인 Port Polska 공항 건설을 위해 총 300억 즈워티 규모의 차입금 조달을 추진 중이며, 2월 3일 핵심 금융협상을 개시할 예정
- 전체 사업비는 약 430억 즈워티로 추산되며, 이 중 300억 즈워티는 부채조달, 90억 즈워티는 국채 형태의 자기자본, 43억 즈워티는 폴란드 공항공사 출자로 충당할 계획
- CPK CEO와 폴란드 국책은행 BGK 회장은 해당 프로젝트를 전략 사업으로 규정하고, BGK의 적극적 금융 참여 방안을 논의할 예정
- BGK는 단일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한 최대 금융지원 한도를 약 100억 즈워티로 설정하고 있으며, 국내 은행 컨소시엄 구성이 추진 중
- 국내 금융권과의 대출 협약은 2026년 2~3월 체결이 예상되며, 이를 통해 국내 조달 부문을 우선 마무리할 계획
- 정부는 본 사업에 대해 별도의 국가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방침으로, 자금조달 비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됨
- 해외 금융기관 및 투자자도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어, 국제 금융 시장에서도 프로젝트 경쟁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

- 차입금 조달 완료 목표 시점은 2026년 7~8월이며, 공식적으로는 연내 금융구조 확정을 목표로 추진 중
- 본 사업은 항공·물류 허브 구축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 전략의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됨

### ○ PSE, 2027 - 2036년 전력망 개발계획 공개(2.3)

- PSE는 “2027 - 2036년 전력망 개발계획(PRSP)” 초안을 공개, 총 660억 즈워티 규모의 송전망 투자 계획을 제시
- 투자 대부분은 북부 지역의 신규 발전원 수용 준비 및 기존 인프라 확충에 집중
- 계획에 따르면 5,000km 신규 400kV 송전선, 30개 신규 변전소, 110개 기존 변전소 확장·현대화가 추진되며, 북부 지역의 해상·육상 풍력, 원자력, 에너지 저장 시설 연결 대비
- 2036년 기준 예상 발전설비는 육상풍력 28GW, 해상풍력 13.9GW, 태양광 43.3GW, 원자력 3.5GW, 소형모듈원자로(SMR) 1.25GW, 기존 화력·바이오매스·가스 25GW, 열병합 5.2GW
- 2025~2040년 기존 화력 3GW가 단계적 폐지되지만, 신규 가스화력 1.8GW 등 저탄소·재생 발전원 투입으로 공급력 유지
- 전력 수요는 2025년 167.5TWh에서 2030년 194TWh, 2040년 264TWh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주 요인은 전기식 난방, 전기차, 데이터센터, 수소 생산용 전기 수요 증가
- 북부로 에너지 인프라 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향후 10년 투자 약 2/3는 북부 지역 준비 및 HVDC(고전압 직류) 송전망 구축, 북서·서부 네트워크 강화에 배정
- 단기적으로 2026~2027년 부족한 생산력은 400~1,000MW 수준으로 예상되나,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및 신규 가스·원자력 설비 투입으로 점진적 해소 전망
- PSE는 신규 발전소, 기존 화력 연장, 에너지 저장 확충 및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 등을 통해 안정적 전력공급과 안전기준 충족을 목표로 함

○ 폴란드 총리·재무장관, 우크라 연대 표명 위해 키이우 방문 예정(2.3)

-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번 주 중 키이우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
- 이번 방문에는 재무·경제부 장관 안제이 도만스키가 동행하며, 올해 6월 그단스크에서 개최 예정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협력 논의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
- 해당 국제회의는 종전 또는 휴전 이후 대규모 재건 투자 및 국제 재원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함
- 투스크 총리는 우크라 재건에 대규모 투자와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, 폴란드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
- 최근 러시아가 흑한기 공격 중단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민간·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습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
- 우크라 국방부에 따르면, 영하 20도 이하 한파 속에서 러시아는 미사일 70여 발과 드론 약 450대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
- 공격 대상에는 수미·하르키우·키이우·드니프로·오데사·빈니차 지역 등 포함
- 투스크 총리는 외국 정상 방문이 러시아 공격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우크라 측 기대를 전하며 연대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
- 현재 우크라 전력·난방 시스템은 지속적 공격으로 매우 취약, 수도 키이우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정전·난방 중단이 장기화되는 상황
- 이번 방문은 폴란드의 對우크라 외교·안보·재건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평가됨

○ ALSTOM, PKP PLK와 분기기 유지보수 4년 계약 체결(2.4)

- ALSTOM은 폴 국영 철도망 운영사 PKP PLK와 2026~2029년 기간 동안 약 3,500대 분기기(Onvia Switch) 점검 및 운용 수리 계약을 체결, 옵션으로 추가 800대 점검 가능
- 계약 범위에는 정기 점검, 운용 수리, PKP PLK 기준에 따른 유지보수 활동이 포함되며, ALSTOM의 분기기 운영·보수 표준을 적용
- 해당 작업은 Onvia Switch 500 전기 분기기 등을 대상으로 수행되며,

전반적인 철도 신호 설비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함

- 이번 계약으로 ALSTOM은 폴란드 철도 분기기 유지보수 부문에서 중장기적 참여 기반을 확보하게 됨
- 4년 계약 이후 옵션 적용 시, 추가 점검을 포함해 최대 약 4,300대 분기기 유지보수가 가능할 전망
- 본 사업은 폴란드 철도망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핵심 유지보수 프로젝트로 평가됨

#### ○ 폴란드 국책은행 BGK, 우크라이나 진출 준비 본격화(2.5)

- 폴 국책 개발은행 Bank Gospodarstwa Krajowego(BGK)의 우크라이나 내 전면 운영을 위한 정부 간 협정 비준 법안이 우크라이나 의회에 등록
- 협정 비준 시 BGK의 우크라이나 내 금융·기술 지원 활동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
- 우크라이나 재건 및 경제개발 프로젝트 지원을 주요 목표로 설정
- 중앙정부, 지방정부, 공기업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대출, 신용공여, 보증, 보조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예정
- 자금 지원은 유로화, 달러화 및 기타 외화로 집행 가능
- 우크라이나 내 은행을 대상으로 무조건·무철회 지급보증(on-demand guarantee) 제공 권한 부여
- 금융권 안정성 제고 및 투자 프로젝트 추진 여건 개선을 통해 전후 복구 및 장기 성장 기반 강화 기대
- 이번 진출로 폴란드-우크라이나 간 경제협력 확대 및 재건 금융 인프라 구축 가속화 전망

#### ○ 중국 Sungrow, 폴란드 첫 유럽 생산공장에 2.3억 유로 투자(2.5)

- 중국 태양광 인버터·ESS 제조업체 Sungrow가 폴란드 Wałbrzych에 첫 유럽 생산공장 건설 계획 발표
- 총 투자 규모 230백만 유로, 연면적 65,400m<sup>2</sup> 시설을 향후 12개월 내 건설 예정
- 연간 생산능력은 태양광 인버터 20GW, 에너지저장장치(ESS) 12.5GWh 규모

- 현지 인력 중심으로 약 400개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
- 유럽 내 친환경 에너지 제조 생태계 구축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 목표
- 유럽 시장 고객 접근성 제고 및 수요 대응력 강화, 공급망 리스크 완화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 예정
- Sungrow Europe 대표는 유럽 현지 생산이 시장 대응력·고용 창출·산업 경쟁력 강화의 전환점이라고 언급
- Sungrow는 2005년부터 유럽 진출, 현재 25개 지사, 2개 R&D센터, 26개 물류창고 등 광범위한 인프라를 구축함
- 최근 유럽 시장용 PowerTitan 3.0 BESS 및 DC 결합형 PV-ESS 플랫폼 출시
- 이번 투자로 유럽 재생에너지 설비의 현지화 및 중국계 기업의 EU 공급망 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

#### ○ Enea Eko - Energia Euro Park, 풍력 전력 공급 계약 체결(2.9)

- 폴 국영 발전사 Enea 계열사 Enea Eko가 Energia Euro Park와 Darżyno 풍력발전단지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, 2026년까지 재생 에너지 전력 판매 추진
- 본 계약을 통해 Euro-Park Mielec 특별경제구역 입주 기업 및 협력 업체에 친환경 전력 공급 확대, 산업 부문의 재생에너지 전환 기반 마련
- Enea Eko는 본 협약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탈탄소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수단이며, 기업 대상 친환경 에너지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라고 강조
- Darżyno 풍력발전 전력 도입으로 산업 활동에 따른 CO<sub>2</sub> 배출 저감 및 지역 환경 부담 완화 기대
- Energia Euro Park 측은 재생에너지 투자가 투자 유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 요소라고 평가
- Energia Euro Park 관계자는 본 협약이 Euro-Park Mielec를 현대적 친환경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전환점이라고 언급
- 이번 협력은 Enea Eko의 에너지 효율 지원, 에너지 진단 등 기업 대상 녹색 서비스 확대 전략과 연계

- Euro-Park Mielec 특별경제구역은 폴란드 산업개발청(ARP) 산하로, 본 계약을 통해 포드카르파치에·루블린 지역 산업 투자 활성화 기대
- 종합적으로 본 계약은 폴란드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기반 강화와 ESG·탈탄소 경영 확산을 촉진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됨

#### ○ Tauron, 풍력단지과 전력망 공유하는 90MW 태양광 발전소 준공(2.9)

- 폴 국영 전력기업 Tauron이 Postomino 지역에 90MW 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을 완료하고 계통 연계 개시
- 본 태양광 단지는 인근 100MW Marszewo 풍력발전단지와 송전 케이블을 공동 활용하는 '케이블 풀링(cable pooling)' 방식 적용, Tauron 최초 사례
- 케이블 풀링 도입으로 신규 송전 인프라 투자 비용 절감 및 계통 접속 대기기간 없이 발전 용량 확대 가능
- Postomino 태양광단지는 타우론 최대 규모 PV 설비로, 준공을 통해 그룹 전체 태양광 설비용량이 약 60% 증가
- 발전소는 약 100헥타르 부지에 태양광 모듈 129,164장을 설치, 약 48,000가구에 전력 공급 가능 규모
- 본 사업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2.7GW 구축을 목표로 하는 Tauron의 중장기 전략의 일환
- Tauron은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, 태양광을 전력 변동성 완화용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
- PV·풍력 연계 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안정성과 계통 신뢰도 제고 기대

#### ○ Eurowind Energy, 폴 북서부 28.6MW 풍력발전단지 건설 본격화(2.9)

- 덴마크 재생에너지 개발사 Eurowind Energy가 폴란드 Nowogrodek Pomorski 지역에서 28.6MW 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 공사 진행 중
- 본 프로젝트는 2025년 말 착공, 현재 터빈 기초 공사 단계에 진입하였으며, 오는 5월까지 부지 정지 및 기반 공사 지속 예정
- 발전단지는 Vestas V110 풍력터빈 13기 설치로 구성될 예정

- 완공 후 약 17,000가구 연간 사용량에 해당하는 친환경 전력 생산 가능
-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연간 150만 즈워티 이상의 지방세 수입 창출로 지역 재정 기여 기대
- Eurowind는 덴마크 식품 포장업체 Faerch와 10년 장기 전력구매계약 (PPA)을 체결, 연간 7만MWh 규모 재생전력 공급 확정
- 장기 PPA 확보로 프로젝트 수익 안정성과 금융 조달 기반 강화
- 본 사업은 폴란드 풍력 시장 내 외국계 개발사의 투자 확대 사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, 고용 창출 및 분산형 재생에너지
- 종합적으로 본 프로젝트는 민간 주도의 장기 PPA 기반 풍력 개발 모델을 통해 폴란드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대표 사례로 평가됨

#### ○ Olavion, 독일 철도업체 RBP 지분 인수로 독일 시장 본격 진출(2.8)

- 폴란드 화물철도 운영사 Olavion이 독일 철도회사 RBP(Rheinische Bahnpersonal- und Verkehrsgesellschaft) 지분 60%를 인수하며 독일 철도시장에 직접 진출
- 이번 거래는 폴란드 기업이 독일 철도회사를 인수한 이례적 사례로, 동유럽→서유럽 진출 흐름을 역전한 상징적 사례로 평가
- 인수 금액은 최대 840만 유로로, 2028년까지 성과에 연동된 언아웃 (earn-out) 방식 적용
- Olavion은 경영권을 확보하되 RBP 기존 경영진과 조직을 유지하는 전략을 통해 시너지 극대화 추진
- RBP는 독일 전역 철도 운송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, Olavion은 이를 통해 포워딩 중심 사업에서 직접 운송 사업자로 전환 가능
- Marcin Bielawa CEO는 이번 인수가 독일·체코·슬로바키아 등 인접국 확장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
- Olavion은 국경 통과 시 기관차 교체, 인허가, 운전자 자격 문제 등 비효율 해소를 우선 과제로 설정
- 국가별 전력 시스템 차이, 차량 인증 절차, 운전자 언어·자격 요건 등이 철도 국제화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됨

- 회사는 보조 디젤엔진 탑재 전기기관차 및 다중전압(멀티시스템) 기관차 중심으로 국제 운송 역량 강화 중
  - Olavion은 평균 운용 연령 3년 미만의 최신 기관차 21대를 보유, 폴란드 내 최첨단 철도차량 운영사로 평가
  - 2029년까지 Newag와 계약한 기관차 20대 추가 도입 예정으로 국제 노선 확대 기반 구축
  - EU 철도청(ERA) 인가를 통해 폴란드·독일·체코·슬로바키아 4개국 운행 자격 확보
  - 향후 체코·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을 중장기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
  - 본 인수로 폴란드 철도 물류기업의 서유럽 시장 진입이 가속화되며, 최신 차량 투자 기반의 국경 간 물류 경쟁력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
- 포드카르파치에주, 'Drone Valley' 구축에 약 135백만 즈워티 투자 추진(29)
- 포드카르파치에주 정부가 Tuszów Narodowy 지역에 무인시스템 인증·개발센터(드론 밸리) 건설 추진
  - 총 사업비는 약 135백만 즈워티로, 2029년 완공 목표
  - 재원 중 일부는 EU '포드카르파치에 유럽기금' 프로그램을 통해 8백만~10백만 유로 지원 예정
  - 드론 전 등급 전면 인증이 가능한 EU 최초 전문 센터로 구축할 예정이며, 폴란드 인증기관 및 민간항공청 인가를 받아 공식 인증기관 역할 수행 예정
  - 13헥타르 부지에 연구동, 관제탑, 격납고, 활주로 2개 등 핵심 인프라 조성 계획
  - 현재 토지 매입 관련 지방정부와 협의 및 주민 공청회 진행 중, 연내 협상 타결 목표
  - Rzeszów 공과대학 및 무인항공시스템 클러스터 참여, 8백만 즈워티 규모 연구센터 공동 구축 추진
  - 미국 네바다 드론 밸리 구축 전문가 참여로 글로벌 협력 강화
  - 학생·민간·공공 부문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 첨단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

## ○ 폴 철도기금 도입, 철도 투자 안정성 강화 및 시장 활성화 기대(2.9)

- 폴란드 정부가 철도 투자 재원 안정화를 위해 '철도기금(Railway Fund)' 도입 추진
- 클림착 인프라부 장관은 연간 철도 투자 규모를 기존 20억 즈워티에서 최소 100억 즈워티 이상으로 확대, EU 기금 및 기타 재원 연계를 통해 중장기 철도 투자 재원 기반 강화하겠다고 발표
- 폴 국영 철도사인 PKP PLK는 철도기금이 지출 안정성과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
- 2026년까지 기금 운영 메커니즘을 시장과 협력해 단계적으로 구축 예정
- 건설업계는 철도기금이 최근 EU 자금 공백으로 위축된 철도 건설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
- Budimex는 철도 분야 대응을 위해 10년간 약 2억 즈워티를 장비 및 차량에 투자한 바 있으며, PKP PLK는 2032년까지 약 1,000억 즈워티를 투입해 약 7,000km 철도망 현대화를 추진함
- 주요 투자 대상은 바르샤바·카토비체·우치·포즈난·브로츠와프 등 대형 철도 허브 및 핵심 물류 회랑이며, 항만 접근성 개선도 병행해 철도-해상 물류 연계 강화 예정
- 철도 기금 도입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지속성과 철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됨

## ○ 폴란드 Energa,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GW 돌파(2.10)

- 폴 에너지기업 Orlen 계열사 Energa Group이 최근 Mitra 및 Szybowice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취득하며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GW를 돌파했다고 발표
- 이로써 Energa의 전체 설비용량 1.9GW 중 재생에너지가 57% 차지
- 태양광 설비는 최근 수년간 약 80배 증가해 428MW에 도달, 풍력은 52% 확대
- 현재 PV Kotla(130MW), PV Serby(112MW), PV Wąbrzeźno(10MW) 등 총 300MW 규모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

- 이외에도 Energa Green Development(EGD)를 통해 케이블 폴링 방식으로 약 130MW 추가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
- 케이블 폴링은 단일 송전망을 여러 발전원과 공유해 계통 활용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며, EGD의 1GW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에는 에너지저장장치(ESS) 결합 하이브리드 사업 포함함
- Energa Operator는 400억 즈워티 규모 역대 최대 전력망 투자 추진 중, 28,000km 이상 송전선 신설·개선 통해 9GW 규모 신규 재생에너지 연계 목표
- 해당 프로젝트는 폴란드 국가재건계획(NRP)으로부터 확보한 저리 대출 94억 즈워티를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

#### ④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

- 우크라 재건 프로그램 3단계, 미콜라이우·오데사 주 신규사업 승인(1.27)
  - 우 지역개발·영토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그램(URP) 3단계 하에서 미콜라이우·오데사 주 22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승인
  - 본 단계 자금은 유럽투자은행(EIB) 지원으로 집행되며, 정부는 전선 인접 지역과 주민 생활에 즉각적 효과를 주는 사업을 최우선 선정 기준으로 제시
  - 미콜라이우 주와 오데사 주 각각 11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, 사업에는 보일러 하우스 재건, 하수 펌프장 복구, 의료시설 재건 아동병원 등 방공 대피소·보호시설 건설 등이 포함됨
  - 현재 드니프로페트로프스크·도네츠크·자포리자·미콜라이우·오데사·수미·하르키우·헤르손·체르니히우 주에서 총 223개 프로젝트가 제안됐으며, 요청 자금 규모는 약 94억 흐리우나임
  - 정부는 URP 3단계를 통해 전력·열·수도·하수·보건·교육 등 필수 인프라의 단계적 복구를 가속화하고, 전쟁 피해 지역의 생활 안정성과 회복 탄력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
  - 이번 승인 결정은 전시 하에서도 지역 기반 인프라 복구를 지속하는 EU - 우크라이나 협력의 실질적 진전 사례로 평가됨

○ 우, Chornomorsk 항만 PPP 사업 착수 및 투자 유치 추진(1.27)

- 우 지역개발·영토부가 Chornomorsk 항만 공공-민간협력(PPP) 프로젝트를 공식 개시, 사업 구조·입찰 절차를 투자자 대상 설명회에서 공개
- 본 사업은 터미널 운영권을 최대 40년간 민간에 위탁하는 concession 방식으로, 민영화가 아닌 국가 소유 유지를 전제로 하며 정부는 전략 자산의 소유권과 이행 감독 권한 보유
- 입찰은 경쟁적 대화 절차로 진행되며, EBRD·IFC가 국제 자문기관으로 참여해 투명성·국제 기준 부합성 확보
- 카슈바 차관은 전시 상황에서도 2025년 항만 물동량 8,620만 톤 처리, 컨테이너 물동량 66% 증가, 215,748TEU 기록했음을 언급, 우 항만이 전면전 속에서도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 중임을 부각
- 정부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전시 중에도 제도적 안정성과 투자 가능성을 입증하고, 전후 재건 국면을 대비한 선제적 민간자본 유입 기반을 구축한다는 전략
- 종합적으로 Chornomorsk 항만 PPP는 우크라이나의 전시 경제 회복력·항만 경쟁력·국제 투자 신뢰도를 동시에 시험하는 상징적 프로젝트로 평가됨

○ 미-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펀드, 초기 프로젝트 22건 선정(2.2)

- 미-우크라이나 재건투자기금이 2026년 1월 접수된 59건의 투자신청서 심사 후, 22개 프로젝트를 2차 평가 대상으로 선정
- 접수된 신청서 중 37건은 우크라이나 기업 제출, 우선 분야는 핵심 광물, 에너지, 교통·물류, 정보통신, 첨단기술
- 3월 말까지 종합 심사 결과를 투자위원회와 이사회에 제출해 최종 자금 지원 결정 예정
- 주요 선정 기준은 자금 조달 가능성, 민간 투자 유치력, 경제 전반 재건 촉진 효과
- 기금 초기 투자 전략은 주로 지분 및 quasi-equity) 금융상품 중심으로 추진
- 프로젝트 선정·준비를 위해 프로젝트 심사위원회는 매월 회의 개최,

전략적 우선순위와 연계된 투자 기회 확보 목표

- **우크라이나, 2026년 지역 분산형 열병합발전 1GW 이상 구축 추진(2.2)**
  - 우크라이나 개발부 장관 쿨레바는 지난 1년 반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500MW 이상의 열병합발전 설비가 설치되었으며, 2026년 중 최소 1GW 규모의 추가 설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
  - 해당 설비는 지역 기반 분산형 발전 및 지역난방 시스템과 연계된 열병합 발전소로, 에너지 시스템의 탈중앙화와 안정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함
  - 쿨레바 장관은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에너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분산형 구조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
  -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력 인프라 복구와 병행해 지역사회 및 기업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
  - 일반 가구에는 자가발전 설비 구축을 위해 10만~30만 흐리우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
  -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전기 연료 구입 및 설비 수리를 위한 보조금과 함께, 발전기·배터리 구매용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도 제공
  - 본 정책은 전시 상황 속에서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지역 기반 회복력 (Resilience) 제고를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
- **우, EU Ukraine Facility 미이행으로 약 40억 유로 지원 차질 우려(2.3)**
  - 우 재건 지원 국제 컨소시엄인 RRR4U는 2025년 말 기준, 우크라이나 Ukraine Facility 프로그램상 15개 핵심 이행지표를 달성하지 못해 약 40억 유로 규모의 지원금 손실 위험에 직면했다고 발표
  - 2025년 1~3분기 미이행 지표 규모는 약 13억 유로로, 반부패 고등법원 (HACC) 인력 충원, 사법 투명성 강화, 집행절차 디지털화, 전력통합 입법 등이 포함됨
  - 2025년 4분기에는 공무원법 개정, 국가보조금법 적용 재개, 산업 규제 완화, 재생에너지 투자 인허가 개선, 에너지 규제기관(NEURC) 지위 확정 등 11개 지표(약 26억 유로)가 추가로 미달성
  - 특히 전력시장 운영기관 임명, 주택·지역난방·철도 관련 법제 정비

지연도 주요 미이행 사안으로 지적됨

- EU는 부분평가 방식을 통해 일부 지표 달성분에 대해서만 단계적 지급을 허용하고 있으나, 장기 미이행 시 해당 재원은 영구 소멸 가능
- 또한 HACC 공식 장기화로 인해 2026년 1분기까지 약 3억 유로 추가 손실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
- 2026년 초 기준, 우크라이나는 1분기 이행지표를 아직 달성하지 못한 상태로, 향후 분기별 의무 이행 부담이 누적 중
- Ukraine Facility는 2024~2027년 총 500억 유로 규모의 EU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, 구조개혁 성과에 따라 분할 지급되는 방식
- 2025년 12월 22일 기준, EU는 최근 23억 유로를 포함해 총 268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완료
- 이번 평가는 전시 상황 속 구조개혁 지연이 대외 재정지원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

○ 우, 미개발 전략광물·티타늄 광구 39개 외국인 투자 재입찰 추진(2.4)

- 우 정부는 장기간 개발되지 않은 전략광물·석유·가스 및 티타늄 광구 관련 특별채굴허가 39건에 대해 재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
- 대상은 전략광물 관련 허가 29건과 석유·가스 개발 허가 10건으로, 대부분 드미트로 피르타시(Dmytro Firtash) 계열 기업이 보유 중인 미활용 광권임
- 경제부 및 지질자원청(Geonadra) 분석 결과, 해당 허가들은 생산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사업계획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례로,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방치된 상태로 확인됨
- 스비리덴코 총리는 정부가 관련 허가에 대해 회수 및 재배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공식화
- 2월 2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가안보국방회의(NSDC)의 추가 대(對) 피르타시 제재 결정을 발효함에 따라, 정경유착 재벌 소유 기업의 미사용 광권 박탈이 가능해짐
- 회수된 광물 자산은 새로운 국내·외 투자자에게 이전되어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될 예정

- 정부는 전략 광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가 경제·안보 강화 및 주요 우방국 공급망 편입을 목표로 설정
- 본 조치는 올리가르히 영향력 축소, 자원 부문 구조개혁,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병행 추진하는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평가됨

#### ○ EBRD, 2025년 우크라이나 사상 최대 투자 집행(2.5)

-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이 2025년 우크라이나에 총 29억 유로를 투자·지원, 해당 금액은 전년 대비 20% 증가한 금액으로,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
- 집행 자금에는 핵심 투자금 23억 유로와 공여금·무역금융 등 6억 유로도 포함되어 있으며, 2년 연속 전체 프로젝트의 90% 이상, 전체 투자금의 57%가 민간 부문에 집중
- 특히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에 대응해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, 가스 수입·분산형 발전·긴급 복구·장기 에너지 복원 사업에 대규모 금융 지원 제공
- Naftogaz에 겨울 대비 가스 비축용 대출 2건이 제공되었으며, 4월 2.7억 유로(노르웨이 보조금 139백만 유로 포함), 8월 5억 유로(EU 보증 및 노르웨이 약 80.5백만 유로 지원 포함)로, 8월 대출은 EBRD의 대우크라 최대 단일 대출임
- 민간 풍력(OKKO Group) 지원에 60백만 유로, Ukrnafta 분산형 가스 발전·열병합에 1.6억 유로, Power One 발전·ESS에 22.3백만 유로 투자
- 인프라·금융·주택 분야에서도 Nova Post, Karpaty Mineral Water, VARUS 등 주요 기업 지원
- 2022년 전면전 이후 누적 지원 규모 91억 유로에 달함
- EBRD의 對우크라 투자 확대는 전시 상황 속 에너지 안정 확보 및 민간 중심 경제 회복 전략 강화의 일환으로 평가됨

#### ○ EU, 2026~2027년 우크라 900억 유로 지원 대출 법적 체계 마련(2.5)

- EU 이사회가 2026~2027년 우크라이나에 총 900억 유로 규모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 체계에 합의
- 유럽의회와 신속 협의를 통해 2026년 2분기 초 첫 자금 집행 목표

- 지원 자금은 우크라이나의 긴급 재정 수요, 일반예산 및 국방 재원 확보에 중점 활용 예정
  - 재원은 EU의 자본시장 차입을 통해 조달되며, EU 예산으로 보증, 러시아의 전쟁배상금 지급 이후에만 상환 의무 발생하도록 구조화
  - 전체 지원금 중 300억 유로는 거시금융지원(MFA)·우크라이나 지원기금(Ukraine Facility) 통해 예산 안정화에 활용
  - 600억 유로는 방산 생산역량 강화 및 군수장비 조달에 배정
  - 우크라이나가 자체 수립한 재정전략에 따라 단계별 집행, EU 집행위 평가 및 이사회 승인 필요
  - 자금 집행 조건으로 법치주의 준수 및 반부패 조치 이행 의무 부과
  - 군수물자 조달은 원칙적으로 EU·우크라이나·EEA-EFTA 기업으로 제한, 긴급 시 예외 허용
  - 특정 제3국도 SAFE 규정 또는 EU 안보협력 협정 체결 여부에 따라 제한적 참여 가능
  - 이자 비용은 EU 예산으로 부담해 우크라이나 부채 부담 완화
  - 강화협력 절차로 24개 회원국 참여, 체코·헝가리·슬로바키아는 불참
  - IMF 추산 2026~2027년 우크라이나 재정 소요 1,357억 유로 중 EU가 약 3분의 2 부담
  - 이번 합의는 전쟁 장기화 속 EU의 중장기 재정·군사 지원 체계 제도화를 의미하는 조치로 평가됨
- 네덜란드, 우크라이나 에너지지원기금에 3,500만 유로 추가 지원(2.10)
- 네덜란드, 우크라이나 에너지지원기금(Ukraine Energy Support Fund)에 3,500만 유로 추가 출연
  - 이번 지원으로 네덜란드를 통한 누적 지원 규모는 총 1억 유로로 확대
  - 추가 자금은 EU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지원 프로젝트인 Ray of Hope 사업에 활용돼 건물 옥상 태양광 설비 설치에 투입 예정
  - 동 사업은 병원 등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비상 전력 공급 확보를

### 주요 목표로 추진

- 해당 사업은 공격에 의한 중앙집중식 전력망 중단 시에도 필수 시설 전력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, 분산형 태양광을 통해 에너지 공급 안정성 강화 추진
- 우크라 에너지부는 최근 독일로부터 첫 에너지 장비 지원 물량도 수령했다고 언급
- 2026년 2월 10일 기준 에너지지원기금 누적 조성액은 약 18억 유로 규모
- 전쟁 장기화와 러시아의 지속적 공격으로 에너지 부문 재건·보호 수요는 확대 추세로 나타남
- 이번 지원은 국제사회의 재정·기술 지원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복력 유지의 핵심 요소임을 시사함

## □ 주요 프로젝트 동향

### ① 종합계획수립(마스터플랜,MP) 사업

#### ① M10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

##### 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해외건설협회, KIND, 태웅로직스
- (용 역 사) 삼일회계법인, 법무법인지평
- (용 역 비) 730백만원
- (용역기간) 2025.2.~2025.12(304일)
- (추진현황) '25. 2월 용역 계약 및 국내 착수보고  
'25. 3월 현지 착수보고  
'25. 6월 중간보고회 개최  
'26. 1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 
'26. 2월 태웅로직스 사업 철회

○ (주요동향)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 개최 예정(1.20)

#### ② 6대 선도 프로젝트(참고)

### ②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사업

#### ① 석화(PDH/PP)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

##### 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Grupa Azoty, Orlen, 현대엔지니어링, KIND
- (사 업 비) 1,840백만불
- (사업내용) 폴리프로필렌 연간 40만톤 생산
- (추진현황) '19.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  
'20. 10월 금융종결  
'25. 8월 발주처, EPC 관련 보증 회수(Bond Call)  
'25. 10월 Orlen, Grupa Azoty에 250백만불 규모 투자안 제안  
'25. 11월 현지SPC,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파산 신청

○ (주요동향) 현지 SPC(GAP S. A.), 구조조정\*을 위해 중재취하를 위한 협의 진행 중(→현대엔지니어링)

\* 구조조정 요건 중 분쟁채권 15% 미만인 경우 '합의조정' 가능

## ② 폴란드 우치 WTE 건설 운영 사업

### 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베올리아, KIND, 남부발전
- (사 업 비) USD 480백만
- (사업내용) 폐기물 연20만톤 처리, 전기 18.6MWe 및 열 57 MWt생산
- (추진현황) '25. 3월 베올리아측 한국 사업주에 사업참여 제안  
'25. 4월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선정위원회 승인 및 MOU체결  
'25. 5월 Non-binding Offer 제출 완료(남부발전)  
'25. 6월 사업참여 외부 자문용역 실사  
'26. 1분기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예정

○ (주요동향) 사업참여를 위한 상세 사항 외부 자문용역 중

## ③ 폴란드 바르샤바 모듈러 주택 단지 개발사업

### 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GS건설, Cordia, KIND
- (사 업 비) PLN 83.34백만
- (사업내용) 총 전용면적 5,296m<sup>2</sup>, 중형(수평분리) 및 대형주택(수직분리) 36세대 건설
- (추진현황) '25. 2월 GS건설-Cordia 공동개발 논의  
'25. 3월 GS건설, KIND向 사업참여 요청  
'25. 6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승인  
'25. 9월 GS건설-KIND간 공동개발업무협약의향서 체결  
'25. 12월 투자심의 승인

○ (주요동향) '26년 1월 이사회 부의(투자) 후 법률자문(현지법인 설립) 시행,  
'26년 2월 이사회 부의(자회사설립) 후 SPA 체결

\* 폴란드법 상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,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조치 필요

#### ④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 개발사업

##### < 사업 개요 >

- (사업주) LX판토스, KIND, PIS펀드
- (사업비) € 129.7백만 (약 2,075억원)
- (사업내용) 총면적 108,977m<sup>2</sup> 규모 물류센터 5개동(Phase I: DC 1·2동, Phase II: DC 3,4,5동) 건설
- (추진현황) '24. 4월 물류센터 Phase 1 착공(시공사 자체자금으로 진행)  
'25. 9월 물류센터 Phase 1 준공 및 운영 시작  
'25. 11월 LH 사업 철회 및 KIND 사업 검토  
'25. 12월 KIND 투자승인 / Phase 2 건축물 공사 착공  
'26. 1월 금융종결  
'26. 2분기 물류센터 Phase 2 준공 및 운영시작 예정

○ (주요동향) '26년 2월 Phase 1&2 현지 거래 종결

참고

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

프로젝트명	주요내용	담당기관	추진현황 및 계획
키 이 우 교 통 마 스템 플 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1단계)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, 우선사업 선정 및 pre-FS 등 * '23.12~'24.11 (수행 : 유신 컨소시엄)</li> <li>• (2단계)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* '24.5~'24.11 (수행 :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)</li> </ul>	KIND LH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'25.4월)</li> <li>• 후속사업(디지털교통플랫폼) 2027 국토교통 ODA 추진</li> </ul>
우 만 스 마 티 마 스템 플 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(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) * '23.9~'24.4(수행 : 제일Eng, 수자원공사 등)</li> </ul>	KIN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4월4주)</li> <li>• 국내기업 등 후속사업 추진 협의중</li> </ul>
보 리 스 공 현 대 화 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, 공항 확장·개발 (활주로 등)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</li> </ul>	한국 공항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대화(공항시스템 개선) :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PMC 선정 ('24.10월)</li> <li>• 공항MP :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</li> <li>• 확장FS : 국토부 지원 사업 과업착수('24.12월), 최종보고('25.12)</li> </ul>
부 차 시 하 수 처 리 시 설 재 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</li> </ul>	환경산업 기술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('25년 7월) * 환경부 F/S 지원사업</li> </ul>
댐 재 건 현 대 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카호우카 댐,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</li> <li>•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</li> </ul>	수자원 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(수자원시설 정책, 기술자문), 용역 발주 예정('26년 3분기)</li> </ul>
철 도 노 선 고 속 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우 키이우~폴 바르샤바 구간(919km) 중 우크라 구간(580km) 철도노선 고속화 계획 수립 등 *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(50→150km/h) 추진 중</li> </ul>	철도공단 (* 운영 등 코레일 협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('25년 11월) * 외교부 ODA 지원사업</li> </ul>